KIA, 후반기 순위 끌어올리기 선봉은 산체스

두산 베어스와 홈 3연전
산체스-알칸타라 선발 맞대결
김종국 "부상과 이닝이 중요"

'호랑이 군단'이 다시 달린다.

KIA 타이거즈가 21일 두산 베어스와의 홈 경기를 통해 후반기 일정을 연다. 치열한 순위 싸움, 뜨거운 두 팀이 후반기를 열면서 챔피언스필드에 눈길이 쏠린다.

전반기에 야수진의 부상과 선발진의 부진으로 고전했던 KIA는 전반 막판 확실히 분위기를 바꿨다. 깜짝 트레이드를 통해 포수 김태군을 영입하면서 공·수를 동시에 강화했고, 외국인 투수를 전면 교체하면서 마운드 새 틀을 짰다.

변화의 바람 속 나성범과 김도영의 부상 복귀로 타선의 힘까지 더해지면서 KIA는 6연승 질주로 9위에서 6위까지 오르면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

KIA의 후반기 첫 상대 두산 역시 9연승 질주로 전반기를 마감한 뜨거운 상대.

눈길끄는 두 팀의 대결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맞대결에 나선다.

메디나의 대체선수로 합류해 KT를 상대로 6.1이닝 1실점 10K의 데뷔전을 펼친 산체스가 후반기 첫 경기 선발로 순위 싸움 전면에 선다.

두산에서는 전반기에 2.03의 평균자책점으로 9승 3패를 찍은 알칸타라가 선발로 나서 10연승 도전에 나선다.

KIA의 후반기 키워드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이닝'과 '부상'이다.

20일 후반기 시작에 앞서 마지막 훈련을 지휘한 김종국 감독은 선수단에게 "전반기는 잊고 시즌을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자"고 언급했다.

새 출발을 언급한 김종국 감독은 후반기 과제로 '부상'과 '이닝'을 이야기했다.

전반기에 야수진의 부상으로 고전했던 만큼 김종국 감독은 후반기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으로 부상을 꼽았다.

전반기에 부상으로 고전했지만 후반기를 앞둔 KIA 상황은 나쁘지 않다. 황대인과 한승택이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변우혁도 올스타브레이크 기간 훈련에 합류하는 등 KIA는 최상의 전력으로 후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닝은 후반기 가장 중요한 과제다.

김종국 감독은 "전반기에 임기영이 정말 많이 고생했다. 어느 상황에서든 나와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 후반기에는 부담을 최소화해주고 싶다"면서 선발진의 이닝을 기대했다.

그만큼 후반기 첫 단추를 꿰는 산체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종국 감독은 산체스에 이어 두 번째 경기에는 파노니를 투입해 '외국인 원투펀치'로 후반기 기선 제압에 나선다.

후반기를 앞둔 선수단 분위기도 좋다.

올스타전에서 눈길 끈 선수가 됐던 소크라테스는 후반기 관중석을 뜨겁게 달구겠다는 각오다.

소크라테스는 "올스타전에서 선수들이 내 응원가를 불러주면서 하나가 돼서 인상 깊었고, 모든 팬들의 지지 받는다는 것도 좋았다. 트럼펫 퍼포먼스가 가장 재미있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즐거웠다"며 "잘 놀고, 잘 즐기고 왔다. 후반기에는 준비했던 대로 100% 역할을 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후반기에도 톱타자로 공격 전면에 서게되는 최원준도 '적응 끝'을 외치면서 뜨거운 후반기를 예고했다.

최원준은 "전반기에 생각이 많았다. 적응하는 데 시간도 필요했지만 적응도 끝났다. 감도 돌아오고 있다. 노력도 하고 있고 하던 대로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나만 잘하면 된다"며 강렬한 후반기를 기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1일 두산전 선발로 낙점된 KIA 산체스가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수비 훈련에서 1루로 공을 던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야구 국가대표팀 전임 감독제 부활한다
프로야구 피치클록·연장 승부치기 도입

KBO리그 내년부터

바닥으로 추락한 한국 야구의 국제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대표팀 전임 감독제가 부활하며 현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시행 중인 피치클록과 연장 승부치기 제도가 KBO리그에 도입된다.

KBO 사무국은 리그 경기 수준과 야구대표팀 전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저변 확대를 이룰 장기 종합 대책인 'KBO리그·팀 코리아 레벨 업 프로젝트'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든 뒤 KBO 사무국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외부 인사 9명과 심층 논의를 거쳐 한국 야구의 장기 전략 방향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KBO리그·팀 코리아 레벨 업 프로젝트는 국가대표팀 전력 향상, 경기 제도 개선, 유망주·지도자 육성, 야구 저변 확대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KBO 사무국은 2026년 WBC까지 대표팀의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향을 수립하고자 전임 감독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감독을 보좌할 코치도 전임으로 선임한다.

KBO 사무국은 또 꾸준히 국외팀을 상대로 평가전과 교류전을 개최해 국가대표팀을 상시 체제에 준하게 운영할 참이다.

MLB의 피치클록과 연장 승부치기는 2024년 KBO리그에 도입된다.

KBO리그는 올해 하반기에 퓨처스(2군)리그와 KBO리그 전 구장에 피치클록 운영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퓨처스리그에서 먼저 적용한 뒤 KBO리그에서도 시범 운영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KBO 사무국은 밝혔다.

2022년부터 퓨처스리그에서 적용 중인 연장 승부치기는 당장 내년 시즌 KBO리그에 도입된다. 정규이닝(9이닝)에 승패가 결정되지 않으면 연장 10회부터 주자를 누상에 두고 공격해 득점을 내는 방식이 승부치기다. /연합뉴스

국가대표 유진 페어, FIFA 선정 '세상 놀라게 할 10대'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역대 최연소이자 최초의 혼혈 선수인 케이시 유진 페어(PDA·사진)가 국제축구연맹(FIFA) 선정 '세상을 놀라게 할 10대'에 선정됐다.

FIFA는 2023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이 개막한 20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세상을 놀라게 할 10대'라는 제목으로 한국 대표팀의 페어를 포함한 10명의 이번 대회 참가 선수를 조명했다. FIFA는 페어에 대해 "신장 178㎝의 큰 키에 어린 선수답지 않은 근육을 가졌다"고 소개한 뒤 "U-17(17세 이하) 대표팀 2경기에서 5골을 터트린 뉴저지 태생의 신예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한국 최초의 혼혈 선수"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벨 감독의 인터뷰를 인용해 페어가 "실력으로 대표팀에 합류했다"며 즉시 전력감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2007년 6월생으로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페어는 16세 1개월로 한국 선수 역대 '최연소' 기록을 세운 것은 물론, 이번 여자 월드컵에 나서는 32개국을 통틀어 가장 어린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광주FC, 수원 원정 … "이번엔 꼭 승리한다"

3경기 연속 무승부 1점 차 6위
K리그2 전남은 기분 좋은 휴식

광주FC가 승리의 간절함을 안고 수원으로 간다.

광주는 22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으로 가 수원FC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3 24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승리가 간절한 광주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대구FC와의 홈경기에서 주영재의 K리그 데뷔골에도 아쉬운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강원과 제주로 이어졌던 초장거리 원정길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광주의 세 경기 연속 무승부였다.

광주는 패배 없이 승점을 더하면서 6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9위 인천유나이티드와 승점 1점 차에 불과하다. 5위 대구와는 승점 2점 차의 치열한 중위권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7일 강원, 11일 제주 원정에 이어 15일 대구와의 홈경기까지 강행군을 펼쳤던 광주는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흐름은 좋다. 토마스와 이희균, 허율, 아사니 등 최전방 자원이 유기적인 움직임과 키패스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고, 앞선 대구전에서 유스 출신 주영재가 7경기 만에 환상적인 중거리포로 K리그 데뷔골을 신고했다.

'아시안게임 대표' 정호연과 이강현이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을 지키고 있고, 경고 누적으로 올 시즌 처음 쉬어갔던 이순민도 다시 뛴다.

아론과 티모는 환상적인 호흡으로 '외인 센터백 듀오'를 구성하고 있고, 부상에서 돌아온 주전 골키퍼 김경민도 좋은 수비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역할이 많은 '주장' 안영규는 앞선 대구전에서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충전했다.

아사니

수원FC는 올 시즌 5승 5무 13패를 기록하며 10위에 올라있다. 최근 7경기에서 2무 5패로 무승 부진에 빠져있고 역대 전적에서도 광주가 16승 4무 6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공은 둥글다.

수원FC는 이승우, 라스, 윤빛가람 등 K리그 최고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로페즈, 바우테르손, 우고 고메스 등 새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전력을 강화했다.

광주가 과감한 공세로 수원FC를 상대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뜨거운 화력으로 분위기를 바꾼 전남드래곤즈는 기분 좋은 휴식라운드를 보낸다.

19일 안산그리너스를 상대로 홈경기를 치렀던 전남은 이번 주말 경기 없이 휴식을 취한다. 이어 29일 성남FC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3연승 질주를 노린다.

최근 K리그2에서 가장 뜨거운 팀이 전남이다.

전남은 지난 16일 진행된 21라운드 경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하남과 발디비아의 '1골 1도움'활약으로 2-0 승리를 거뒀다. 적지에서 선두 경남을 잡은 전남은 19일 안산과의 홈경기에서는 시원한 공세로 5-2 승리를 가져왔다.

발디비아가 2골 2도움의 '원맨쇼'를 펼치면서 대승을 장식했다.

전반 7분 플라나의 골을 도운 발디비아는 2-1로 앞선 전반 42분 다시 한번 고태원의 득점에 관여했다.

발디비아는 후반 23분과 후반 45분에는 지상욱의 도움을 받아 시즌 10호골에 이어 11호골을 연달아 장식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전남은 이날 승리로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의 전적을 기록했다. 5경기에서 무려 15골을 터트리면서 가장 뜨거운 공격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은 기분 좋은 연승 속에 휴식라운드를 보내면서 전력을 재정비하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